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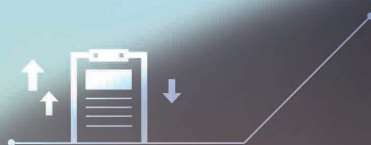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

KVCA 이슈

4차산업혁명 시리즈-생체인식기술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Contents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July vol.109

03

뉴스 & 리뷰 NEWS & REVIEW

04 KVCA 소식

-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 중소기업청장과의 VC업계 간담회 개최
- 2017년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 신규창투자 및 회원사 방문서비스 실시
- 2017 벤처창업대전 정부포상 신청안내

09 연수원 소식

- 2017년 제22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개최
- 7월 교육 안내

11 투자 협력·M&A

- 찾아가는 투자 IR
- 벤처 투자 사랑방
- M&A 활성화 지원사업

14 R&D사업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 연계 과제

16 협회사 동정

- 2017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 참석
- MK 바이오헬스 스타오디션 & 바이오헬스 창업 페스티벌 참석

17 회원사 소식

19 투자 유망 기업 탐방

- 이에스이(주)

21

이슈 ISSUE

22 4차산업혁명 시리즈-생체인식기술

24 바이오 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26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28 벤처캐피탈 법률 Q&A

31

시장 동향 Market Trend

32 5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38 (VC포커스) 해외 1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42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발행일 2017년 7월 10일(통권 109호 7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현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뉴스 & 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6월 초부터 본 회는 상근 부회장 선임을 위한 제4차 이사회 및 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제19조(이사회), 제9조(총회), 제11조(총회의 의결방법), 제34조(서면결의) 등에 의거하여 진행된 이사회에는 총 29개사(전체)가 참여하였

고 총회에는 총 68개사(총106개사 중)가 참여하여 안건이 가결되었다. 결과에 따라 오세현 상근 부회장이 7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 오세현 상근 부회장 주요 약력 ●

학력 : 충남대 기계공학 박사('05)

경력(중소기업청)

- 사무관(2000~2006) : 기술개발과, 기술개발팀, 혁신인사기획팀 등
- 서기관(2006~2015) : 중소서비스기업과장, 기술협력보호과장 등
- 부이사관(2015~2017) :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중소기업청장과의 VC업계 간담회 개최

6월 29일 반포에 위치한 웨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VC업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업계 참가자는 본 회 이용성 회장을 포함, 이사회 18개사 및 사무국 임원 등이 참여하여 최근 정부조직 등의 변화에 따른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청에

서는 주영섭 청장과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이 참석하였다. 조찬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업계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2017년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회장단 및 출입기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벤처투자 시장동향과 창투자 우선순실총당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2017 바이오 투자 동향 및 전망(KB인베스트먼트 신정섭 본부장), 해외 투자제도 비교(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다양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 그리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은 벤처캐피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 제도적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투자 3조 원, 운영자산 3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성숙하고 선진화된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성 회장은 “벤처캐피탈의 산업적 역할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며, “벤처캐피탈업계의 성과가 벤처 전반으로 확대되어 국내 벤처생태계의 혁신 역량을 확충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의지를 피력하며 언론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① ② 이용성 회장 - 인사말

③ 장일훈 팀장 - 우선순실총당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신정섭 본부장 - 2017 바이오 투자 동향 및 전망

⑤ 이종건 대표변호사 - 해외 투자제도 비교

KVCA 소식

신규창투사 및 회원사 방문서비스 실시

본회는 지난해부터 신규등록 창투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에 처음 진출한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회 회원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6월에는 2016년 4월에 등록하고 관악구 봉천동에 자리잡은 스프링캠프를 방문하여 약 1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신규창투사 이외에도 본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독려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회원사 방문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하는 중이다. 이번 달에는 데일리벤처투자자와 이후인베스트먼트를 방문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회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방문일자	회사명	비고
6.15	데일리벤처투자	회원사
6.21	스프링캠프	비회원사
6.29	이후인베스트먼트	회원사



데일리벤처투자
심재인 대표(좌), 본회 김형수 전무(우)



이후인베스트먼트
박철 대표, 이동희 부사장(좌), 본회 김형수 전무(우)

2017 벤처창업대전 정부포상 신청안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2017 벤처창업대전」의 정부포상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벤처캐피탈과 투자지원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 '투자 활성화 분야(투자지원 부문)'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분야

분야	부문	대상	주관기관
벤처 활성화	벤처기업	벤처기업인	벤처기업협회
	벤처지원 (단체·개인)	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투자 활성화	투자지원 (단체·개인)	벤처캐피탈·벤처투자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창업지원 (단체·개인)	창업지원기관(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및 소속 임직원	한국창업보육협
	청년기업	(만 39세 이하) 기업인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지식서비스 활성화	지식서비스기업	(1인 창조기업) 기업인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
	지식서비스지원 (단체·개인)	지식서비스 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신청자격

투자 활성화 분야

포상부문	자 격
투자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한 벤처캐피탈회사* 및 소속임직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KVF 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 * 창업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벤처투자시장 선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 * 협회 등 유관기관, 벤처펀드 출자기관 등

포상규모

산업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중기청장 표창 등 172점(국무총리 표창 이상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016년 포상규모 : 총 167점(훈·포장 5, 대표 18, 국표 17, 장관 67, 청장 60)

2016년 투자부문 포상규모 : 총 5점(포장 1, 대표 1, 국표 1, 장관 1, 청장 1)

KVCA 소식

| 시상일정(예정)

2017년 11월 30일(목) 11:00 그랜드볼룸 및 코엑스 C홀 특설무대

*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수상자별로 개별 안내

| 신청기간

2017년 6월 26일(월) ~ 7월 26일(수) 17:00 까지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www.k-startup.go.kr)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신청기간 내)

분 야		접수처		문의처
		온라인	오프라인	
벤처 활성화		k-startup 홈페이지 (www. k-startup.go.kr)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벤처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2-6331-7140~5
투자 활성화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2-2156-2103 02-2156-2122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대학창업부) 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42-480-4416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무역회관 11층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42-346-9708
	청년기업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02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공포상 사무국	02-2156-2293
지식서비스 활성화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지식서비스창업부) 지식서비스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42-480-4385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공지사항 '2017 벤처창업대전 정부포상' 신청안내 참고

연수원 소식

2017년 제22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개최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은 벤처캐피탈 관련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공통과정과 투자 심사보고서 발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무를 습득하는 필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투자회사 재직자는 두 과정 모두 이수 후 전문인력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번 교육에서는 벤처캐피탈 업계부터 학교 및 금융업, 일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네트워킹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3기 교육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일자** 공통과정: 2017년 6월 19일 ~ 6월 24일(5박 6일 합숙) / 필수과정: 6월 28일 ~ 6월 30일(3일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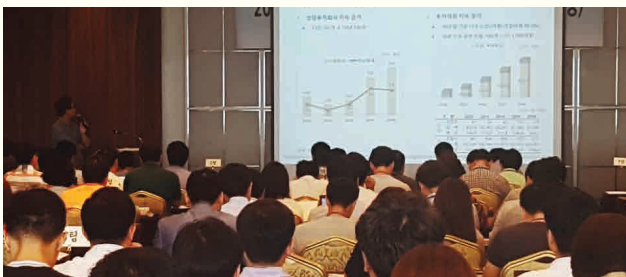
• **장소** 공통과정: 여주 선클리호텔 / 필수과정: 강남 SK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

내 용	강 사
공통과정	
벤처캐피탈 개요 & 필수 용어 정리	비에이파트너스 상무 이정석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 역사 및 투자동향, ISSUE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엘비인베스트먼트 전무 구중희
벤처캐피탈과 법률 - 법률 용어 해설 - 창지법, 벤특법, 자동법 등	Cosmos Incubator 대표 / 변호사 이종경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 김성은
Valuation & Pricing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중국 VC와 투자 사례	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 박기호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 코넥스, SPAC 등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벤처캐피탈과 지식재산권	아이디벤처스 팀장 강훈모
벤처기업 M&A 절차 및 사례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VC투자 핫 이슈,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 (딜소싱, Valuation 등 투자 사례) - 문화콘텐츠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Private Equity 및 투자 사례	스틱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정한설
SCREENING & ANALYZING BUSINESS PLANS	에트리홀딩스 대표 조병식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전략 및 사례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건수
창업과 초기기업투자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신정섭
VC투자 핫 이슈,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 (딜소싱, Valuation 등 투자 사례) - 바이오	



연수원 소식

내 용	강 사
필수과정	
초기 기업 IR 및 Q&A	
(1) 전기·기계·장비	정상라이다 대표 김기종
(2) 바이오·의료	이뮤너스 대표 황석홍
(3) ICT·서비스	텐디 대표 김찬웅
초기 기업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딜소싱, Valuation & Pricing 포함)	
(1) ICT·서비스	보광창업투자 이사 신윤수
(2) 바이오·의료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권인호
(3) 전기·기계·장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전무 하태훈
벤처캐피탈(조합) Tax 해설	신정회계법인 이사 / 회계사 박상학
비상장기업 재무(부실예측) 분석(업종별 Case Study)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1) 신주(RCPS) 인수 투자계약서(Refixing, Tag-along, 이해관계인 등)	법무법인 이후 대표 / 변호사 이종건
(2) CB, BW 투자계약서	
VC의 Fundraising : 펀드기획과 제안기법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실장 한철호
심사보고서 팀별 발표, 질의응답, 심사위원단 팀별 총평, 평가 우수팀 시상	심사위원장 : 하태훈 전무(디에스씨) 심 사 위 원 : 권인호 이사(케이비) 신윤수 이사(보광) 이종건 변호사(이후) 손민호 이사(수림) 김동훈 회계사(신정)



(7월 교육 안내)

- 교 육 명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과정
- 운영 형태 2박 3일 합숙
- 일 자 7월 5일(수)~7월 7일(금)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휴학생
- 과정 개요 대학(원)생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신청 기한 6월 23일까지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찾아가는 투자 IR

Ⅰ 찾아가는 투자 IR 개최 결과

지난 6월 본회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투자 IR(경남)>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인 <찾아가는 투자 IR>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찾아가는 투자 IR>은 벤처투자부를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경기, 대전, 인천, 광주 등에서 총 10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찾아가는 투자 IR>에 VC심사역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101개사의 투자설명회, 1,000회의 투자상담을 진행하며 투자기관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간

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회는 상반기 본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중소·벤처 기업을 투자기관에 소개하였으며, 하반기 투자기관에 유망기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온라인 투자 ZONE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본 회의 노력에 맞추어 우리 업계 심사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벤처투자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 1 경남-창원대학교



투자 협력·M&A

벤처 투자 사랑방

6월 벤처 투자 사랑방 개최

벤처 투자 사랑방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상담하면서 투자절차나 전략 등에 대해 투자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사랑방은 지난 6월 20일 중소벤처기업 8개사와 벤처캐피탈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전 벤처캐피탈의 심사과정과 투자심사 보고서 분석에 대한 특별강연을 청강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 투자 사랑방 안내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 활성화 지원사업

2017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상반기 주요 실적

본회는 2016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M&A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국내외 M&A 컨퍼런스 개최, M&A 자문기관·지원센터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6년 기준 72건의 M&A 거래정보망 성사 및 14건의 기업진단비용 지원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 M&A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에도 지난 3월 22일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7년 상반기 기준 등록 자문기관 약 10개사, 등록DB 약 300건이 신규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M&A 거래정보망 성사건수 30건, 기업진단비용 지원 3건 등 2016년 상반기에 비해 양호한

• M&A 매칭데이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 1회 개최되는 M&A 매칭데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40여 개의 기관 및 기업이 M&A 매칭데이에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M&A 자문기관 워크숍 및 지원센터 간담회 개최(2회) 등 M&A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본 회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기업진단비용 지원 안내 및 행사

개최 등을 통해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VC 구주유통망 연계, M&A 거래정보망 신규메뉴 개발 등 지속적인 M&A 활성화 신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지원센터(02-2156-212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M&A지원센터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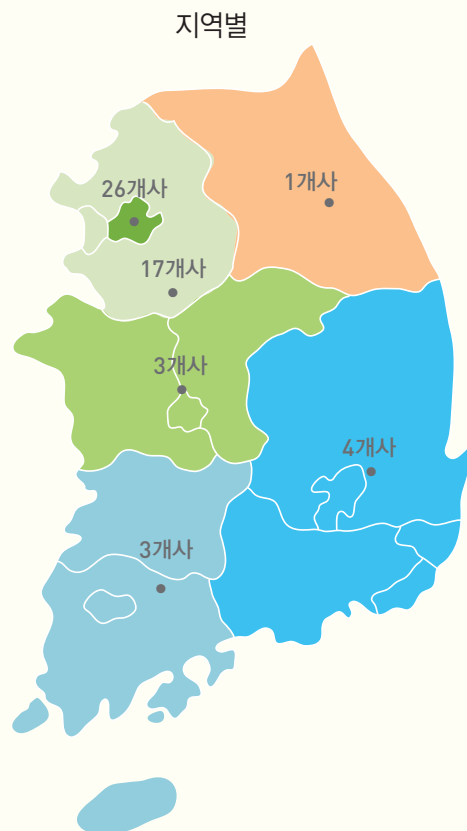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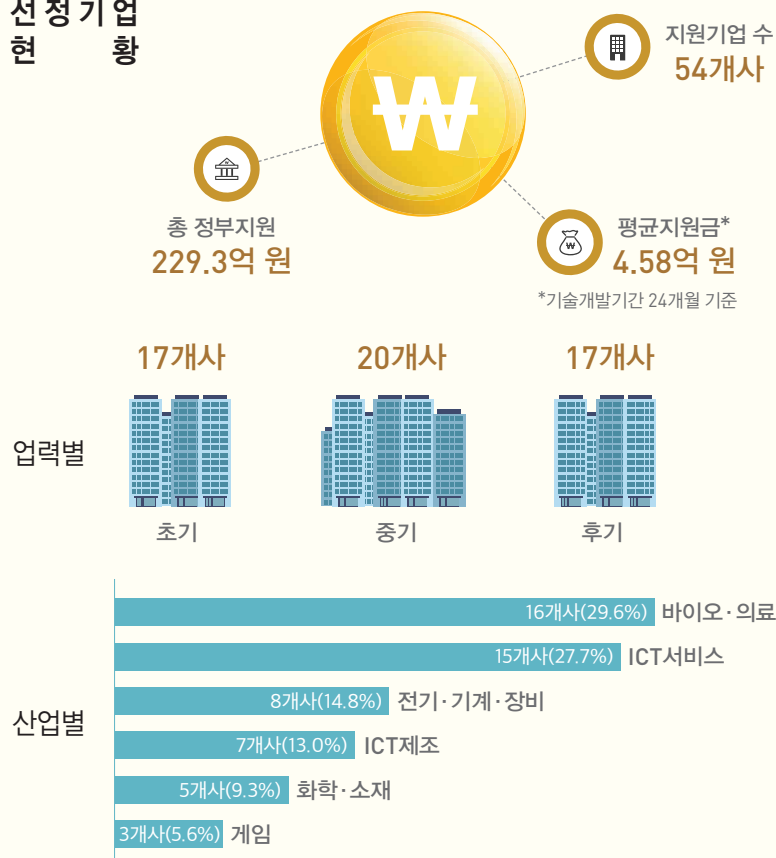
• M&A 자문기관 워크숍

R&D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I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지원대상 주관기관 최종 선정

본회는 국내외 최상위 VC 및 지방청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신규 R&D사업인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의 운영기관으로 지난 6월 지원대상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기업
현황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해외진출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8일(수) 서울 COEX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중소기업청 투자연계 R&D과제 우수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 해외 마케팅 기회와 전략(이정순 KOTRA) △ 해외조달시장의 이해 및 진출사례(장영두 조달청 교육원) △ 차이나 2.0과 한국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전략(정주용 비전크리에이터)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 6월 CEO 조찬세미나 개최(1차, 2차)



본회는 지난 6월 15일(목) 라마다호텔 스위트 서울 남대문에서 '창업자라면 꼭 봐야 하는 법률 이슈(연사 :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를 주제로 하여 6월 1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6월 28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연사 :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하여 2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차 조찬세미나에서는 계약서 체결 시 내용 확인 및 법인인감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투자 계약 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재무 및 법률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에 곧 도입될 예정인 미국의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와 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특히 창업 초기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차 조찬세미나에서 서경덕 교수는 자신이 진행한 한식 및 한글의 세계화 프로젝트, 독도·동해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자신이 최고의 한국 홍보 전문가로 우뚝 서게 된 원동력으로 글로벌 에티켓, 창의적 사고, 미친 실행력을 제시하였다. 해당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매너를 몸에 익히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본자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미친 실행력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교수는 창의적인 도전으로 세상을 혁신하는 벤처기업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협회장 동정

2017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 참석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7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여 각 연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용성 회장은 성화용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이사의 개회사 다음으로 인사말씀을 진행하였고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 주도의 성장을 꾀하는 J노믹스의 중심에 벤처가 있고,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한 중차대한 과정에서 오늘의 행사가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후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큰 틀을 짠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영삼 한국산업연구원 박사가 '3기 벤처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실무진을 포함해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해결



해 나아가 할 수행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서성호 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실장, 송치승 원광대 교수,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장,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벤처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되었다.

MK 바이오헬스 스타오디션 & 바이오헬스 창업 페스티벌 참석



지난 6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MK 바이오헬스 스타오디션 & 바이오헬스 창업 페스티벌에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국내외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정부 관계자를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고 창업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매일경제, 미래부, 식약처가 주최가 되어 개최된 행사로, 개막식, 시상식, 바이오·헬스케어 창업관련 기조강연, 1:1 투자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용성 회장은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바이오벤처와 벤처캐피탈이 만나는 1:1 미팅도 되었다. LB인베스트먼트, 세종벤처파트너스, 에스엠시노기술투자 등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 적극 나섰으며, 차세대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투자자 연계, '헬스저널' 등을 통한 회사 및 기술 홍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었다.

KVCA

회원사 소식

대교인베스트먼트

‘DKI Growing Star 3호 투자조합’을 통해 올 하반기와 내년 여름 2부작으로 개봉예정인 상업영화 신과 함께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대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투자조합’을 통해 장편 TV 애니메이션 다이노캡스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대성창업투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앵커 LP로 나서 조성한 펀드인 글로벌파트너십펀드의 운용사 자격을 반납했다. 대성창업투자와 요즈마그룹이 공동으로 GP를 맡아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펀드 조성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 대성이 운용사 자격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 지분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자회사인 슈미트를 설립했다. 주요 등기임원은 윤건수 대표와 하태훈 전무 등 2명이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인 등록을 마치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본격화되진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투자금을 모아 내년께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를 통해 애니메이션 다이노캡스에 5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지난 2월 결성한 뒤 극장판 애니메이션 점박이2 등 2건의 애니메이션에 투자했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SGI퍼스트뱅크스타트업펀드’의 약정 총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늘어난 390억 원으로 확대했다. 펀드 결성 2년여 만으로 대규모 증액을 통해 초기기업 발굴과 투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투자파트너스

국민연금공단이 앵커 LP로 나선 벤처펀드 결성에 나섰다. 지난해 중반 국민연금이 벤처펀드 출자사업에 도전해 GP자리를 따낸 펀드로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결성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형태는 KVF로 확정됐다.

썬레이인베스트먼트

70억 원 규모로 ‘썬레이&NEW 인덱스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결성총회를 개최한 후 펀드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이 펀드는 결성 이후 NEW가 배급하는 개봉작에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매 작품의 프로젝트마다 10% 가량을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스톤브릿지캐피탈

벤처캐피탈 본부를 물적분할해 ‘스톤브릿지벤처캐피탈’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신설했다. 이후 기존 스톤브릿지가 가지고 있던 창업투자회사 지위를 승계하여 자본금 70억 원이 되었다. 기존 벤처캐피탈 본부 인력은 그대로 스톤브릿지벤처로 소속되고 PE 본부는 스톤브릿지에 머무른다. 다만 김지훈 대표와 백상석 전무(CFO), 오길령 변호사(컴플라이언스)는 두 개 법인을 겸직하게 된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 퓨처코리아 투자조합’을 통해 게임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2015년 6월 설립된 게임펀드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체다. 출범 이후 전함제국 : 강철의 함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모바일 주식투자 전문 앱 카카오스타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보통주(구주) 지분 일부를 매입했다. 거래 금액은 30억 원 안팎이며 평가한 기업가치는 약 2년 전 투자했던 카카오보다 2.8배 가량 높은 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VCA

회원사 소식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최근 VMG 미디어그룹으로부터 베트남 결제 중개업체인 VNPT ePay JSC(이하 VNPT ePay)를 인수하면서 베트남 핀테크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VNPT ePay는 베트남 내 온라인 결제 및 휴대폰 요금 결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연평균 거래 건수 1억 건, 취급고 4,000억 원 이상을 기록중인 VNPT ePay는 베트남 시장 내 결제 중개 선두업체로 꼽힌다. 또한 '인천창조경제혁신펀드'를 통해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인 티비스켓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

프리미어파트너스

유망 정보보안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약 45억 원을 투자한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메일 보안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2015년 60억 원을 투자한 지니언스(옛 지니네트웍스)도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이르면 다음달 코스닥 입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조합원 총회를 열고 750억 원 규모 바이오 전문 투자펀드인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를 750억 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지난해 프리미어파트너스에 합류한 신봉수 부사장이 맡는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과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펀드'를 통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09-6스마일게이트벤처투자조합)가 보유중이던 카페24 보통주 10만 주를 인수했다. 1999년 설립된 카페24는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데이터 분석 등 전자상거래 관련 쇼핑물 제작 및 운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문업체다.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이노폴리스파트너스(유)	이상진	이상진, 이기주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쉴레이인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6층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현민타워 8층 801호
TEL : 02-554-0983 / Fax : 02-553-0983		

투자 유망 기업 탐방

Smart City 플랫폼 분야 선두주자 '이에스이(주)'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 기업은 세계 최초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All in One 솔루션인 스마트센터플랫폼(Smart Center Platform)을 통해 Smart City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이에스이(주)'입니다.

I. Smart City 통합운영을 위한 핵심 S/W솔루션 제공

이에스이(주)(대표 박경식)는 2000년 창업 이후 철도, 도로, 항만, 교통, 지리원, 지자체 등의 관제분야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최적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해왔으며, 모든 관제 센터에는 공통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동안의 현장경험과 노하우 및 핵심기술들을 집결하여, 모든 관제센터의 근간이 되는 '스마트센터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 이에스이(주) 스마트센터플랫폼을 통한 Smart City 통합운영



2012년 스마트센터플랫폼을 꿈꾸며 제품명칭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조선 시대 학자인 토정(土亭) 이지함 선생의 후손을 만나 작명을 받았습니다.

리노(俐勞 : 똑똑할 리, 공로 노)

대지 대업, 공명승화의 뜻으로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내의 모든 상황을 똑똑하게 감시하고 분석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뜻입니다.

IT기업에서 제품명칭을 한자로 작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지만, 그 뜻깊은 의미가 회사의 전략과 비전으로 되어 제품개발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스이(주) 직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정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명만 거창하게 받고, 큰 비전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스이(주)는 17년의 현장 경험과 17년의 Know-how가 있었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이었고, 단계별 기술 Roadmap에 따라 개발하여 현재의 스마트시티플랫폼인 리노를 완성하였습니다.

‘리노’는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SW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였고, 개방형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기반으로 구현되어, 개방형 OS인 Linux상에서 전체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리노’를 구성하는 각 모듈은 컴포넌트화 되어 있어, 레고블럭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 관제센터 구축보다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으며, 화성시 Smart City 통합플랫폼 구축, 평창동계올림픽 MOC 통합플랫폼 구축, 군포시 방범 CCTV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교통센터 통합플랫폼 구축, LS산전 R&D 센터 빌딩 통합플랫폼 구축, 김포공항 항공 등화관제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관제분야에 적용하여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리노’가 적용될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모든 사물이 소통하므로, 도시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하는 똑똑한 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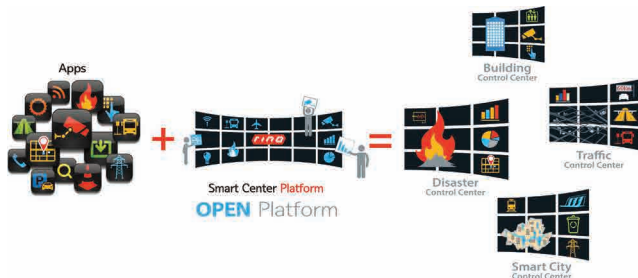
II. Smart Phone처럼 도시 서비스를 쉽게 구축하는 Open Platform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서비스(APP)를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플랫폼(안드로이드, iOS)이 다양한 앱(App)을 쉽게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공통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리노'도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기능을 모듈화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제 앱(App)을 쉽게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센터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노 스마트센터플랫폼'에 교통소통정보, 실시간교통 CCTV, 교통신호제어, 돌발상황관리 등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앱(App)이 설치되면, 스마트교통센터가 구축됩니다. 지능형 영상감시, 방범 CCTV, 침입감시, 실시간 범죄정보 등의 다양한 방범서비스 앱(App)이 설치되면, 스마트방범센터가 구축되며, 화재감시, 응급차량 출동정보, 재난분석정보, 건물붕괴정보 등의 다양한 재난서비스 앱(App)이 설치되면, 스마트재난대응센터가 구축됩니다.

스마트폰의 앱(APP)은 사용자에게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특정 앱(APP)의 서비스에 장애가 있을 경우, 다른 앱(APP)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앱(APP)만 삭제하고 재설치하면 정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듯이, 리노 스마트센터플랫폼도 운영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앱(App)은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이상 있는 앱(App)만 삭제하고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처럼 쉽고 간편한 개방형 스마트센터플랫폼



이러한 특징은 현재 국·내외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시티플랫폼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각 앱(App)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더 유연한 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수용을 할 수 있으므로, 수입대체 효과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인해 창의·혁신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리노' 플랫폼을 통해 융합되고, 누구나 API에 따라 손쉽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개발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회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복잡해진 재난 발생유형에 대한 예방중심의 종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사회재난 복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수요급증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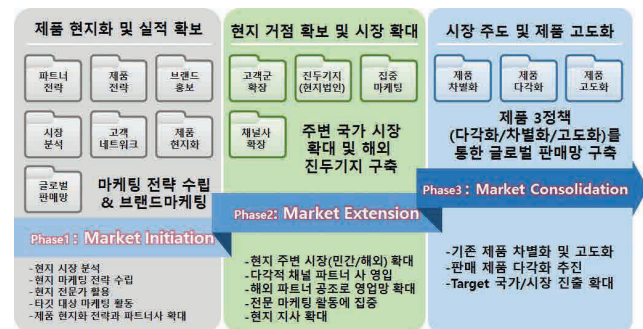
III. 국내외 파트너십 체결로 Smart City 시장경쟁력 강화

세계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 적용이 활성화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약 2경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으로 인한 중국 지체도시 시장 규모는 7,3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스이(주)는 중동, 아세안, 중국 등 18개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리노 스마트센터플랫폼' 공급 협상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에는 한국 최초로 중국 1급 도시(톈진)에 수출하여, 제품 현지화 및 실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SI기업인 화웨이, ISOFTSTONE, 화루그룹, 보통수거, 안태과기, 알리바바, 타이지 등과 플랫폼 OEM 공급을 협의하며, 중국 Smart City 플랫폼 분야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이에스이(주) 글로벌 진출전략



이에스이(주)는 Smart City 도시관제센터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운영 및 확장이 쉬운 최고의 솔루션과 경험으로 세계 Smart City 시장의 Hidden Champion이 되기 위해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스이(주)는 협회가 운영하는 2014년도 기술혁신 개발사업 투자 연계과제 선정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에스이(주) 박경식 대표이사(031-622-3939, ucad@daum.net)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bms@kvca.or.kr)

이슈

I S S U E



12:08
AUGUST

4차산업혁명 시리즈-생체인식기술

차세대 생체인식기술과 FIDO전망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패스워드의 종말?**

인터넷과 연결되는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중화되면서 ‘패스워드 증후군(Password Syndrome)’을 앓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패스워드 증후군은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자신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각종 비밀번호를 저장해두는 스마트폰 앱 사용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 저장 앱은 스마트폰 분실 시 매우 위험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 기술로 생체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FIDO 생체인증?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지문인식,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증 프로토콜과 인증 수단을 분리해 보안성

과 편리성이 높고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인증기술이라는 점에서 최근 차세대 인증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문, 홍채, 지정맥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생체인증 종류와 관계없이 개방이란 모토로 시작됐고, 노트북·PC, 안드로이드 같은 웹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FIDO 2.0이 발표될 예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노트북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생체인증 장치가 빌트인(Built-In)된 노트북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PC와 노트북에 생체인증장치 확대가 예상되는데,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FIDO 2.0에서는 초연결이란 모토로 스마트폰, 데스크톱,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IT 기기가 단 한 번의 생체인증으로 추가 인증 없이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스마트폰으로 생체인증을 받으면 새로 구매하는 노트북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인증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앱과 웹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초연결 인증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미래 생체인증기술 적용은?

미래에 생체인증기술은 스마트폰과 핀테크 외에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개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생체인증기술이 융합된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원격진료, 환자 신분 확인, 무인 전자처방전 등에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이 적용을 테스트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지정맥 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증 자동차 열쇠가 시동기능, 제3자운전, 운전자의 생체리듬 건강진단과 구난활동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된 각종 IoT 홈 관련 기기 인증에도 우선 적용될 것이며 관련 기술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실 생체인식 대상 중 지문이나 홍채보다 안전한 지정맥 인증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초박형 단말 탑재용 모듈 개발이 관건이다.

지정맥 기술은 지문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의 지정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그 장소에 있지 않고서는 인증이 불가능해 지문처럼 실리콘 모형으로 위조가 불가능하다.

생체인증은 안전한가?

그러나 현재 발견된 생체인증 시스템의 위협과 취약점은 대략 8가지로 정리되는데, 그 중 6가지가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과정에

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C-P-N-T 즉, 콘텐츠 영역, 플랫폼 영역, 네트워크 영역, 터미널 영역 모두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스토리지에 보관하면서 네트워크 전송과정 등 여러 보안 위협과 취약점 발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서버 측에 저장, 전송하지 않는 FIDO 생체인증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돼 확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형 해커집단과 블랙마켓의 활성화로 다중요소 인증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FIDO U2F 기술과 같이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은 여러 인증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본인 확인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문, 얼굴, 지정맥 기술 등의 생체인증에 결합해 스마트카드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중요소를 인증하거나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구글의 행위 기반 연구 프로젝트인 '아바커스 프로젝트'에서는 생체인증기술과 자판입력 패턴이나 걸음걸이, 음성패턴, 현 위치 등을 분석, 이중 인증 시스템을 작동해 진정한 소유자인지 판정하는 복합판정(인증)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인증기술이 확대된 이유는 2015년 3월 금융위원회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발표하면서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시했고, 이에 따라 본인인증, 거래인증, 상호인증, 지급결제, 보안 인증 등에 각종 다양한 인증기술이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그 중 가장 개방적이며 확장성이 돋보인 기술이 FIDO 생체인증기술이다.

생체인식 시장 전망은?

생체인식 전문 분석기업 AMI는 2020년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이 3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핀테크를 단초로 IoT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더 큰 시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증기술과 생체인증기술이 시장 지배를 위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관련 법규나 기술표준 및 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 생체인증기술과 시장은 다양화,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혹자는 가장 많이 보급된 지문 시장이 점차 홍채나 지정맥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문 시장은 지문 시장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할 경우 지정맥 시장이나 복합판정 인증 형태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오 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의사출신 바이오 심사역이 바라본 바이오 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문여정
인터베스트 이사

최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였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하는 창투자 투자현황에 의하면 2017년 4월까지 벤처투자는 총 5,963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 바이오·의료분야 투자는 866억 원으로 전체대비 1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도 같은 기간의 투자액 1,182억 원 대비 73% 수준이며 2016년 전체투자 비중 21.8%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바이오·의료 투자금이 2016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미약품의 계약 변경 등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실망감으로 2017년부터 바이오 분야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한미약품 9건의 기술 수출 이후 2016년 2건이 반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테크 주가도 동반 폭락을 했다. 그러나 실제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 평균 1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임상 시험비용, 그럼에도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신약개발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9건의 기술 수출이 모두 치료제로 개발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 것이다.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세포실험을 통해서 개발 약물의 기본 원리를 입증한 이후 쥐 실험, 개 실험, 심지어 원숭이 실험까지 해서 독성 및 약효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비임상을 통과하고 사람에게 투여해도 되는지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만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임상시험도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약물이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1상, 실제 약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2상, 기존 약물보다 효과가 좋은지 확인하는 3상이 있다. 1상에서는 수십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3상의 경우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개발

하고 임상 1상, 2상을 통과한 약물이 임상 3상에서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정되어 출시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다 부작용으로 중지된 약도 300개가 넘는다.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는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R&D 모델을 찾는다. 기초과학 분야에 연구 성과를 낸 연구팀이 창업한 바이오벤처, 규모가 작지만 치료제 개발의 아이디어를 잘 잡는 바이오테크 등과 협업이나 M&A를 통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단독 연구한 약물의 성공 비율(11%, 463개중 51개)보다 바이오테크와의 협업, 공동 연구를 통한 성공 비율(34%, 355개중 119개)이 높은 것을 보아도 Open Innovation 을 통한 R&D 효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 개발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만 해도 신약 개발연구는 글로벌 제약사의 거대한 자본과 규모, 경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게 통설이었다. 그러나 변화가는 트렌드에서는 오히려 작은 기업이 연구와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 떨어지지 않는 임상시험 인프라, 생명과학 분야 연구의 탄탄함, 학계와 산업계의 수준 높은 인력 등이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국내 바이오벤처, 글로벌 제약사 등 업계 종사자들의 신규 기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지점은 대학 교수와 전문 경영인의 조합이 증가하는 지점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대학 교수는 많지만 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거나 사업에 익숙지 못한 분들이 바이오벤처나



계약사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바이오벤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 중심 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2016년 443개의 바이오 스타트업이 창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1차 붐이 있었던 2000년의 288개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며, 2017년에도 2016년에 버금가는 바이오벤처가 창업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필자가 속한 인터베스트는 2016년 22개 업체에 43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주로 초기 업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2000년 중반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해외기술의 국산화 및 미투전략에 치우쳐 제품개발을 수행하였다면, 최근 등장한 바이오기업들은 기술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등에 있어 세계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혁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씨앗들에서 싹이 트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바이오벤처의 기술을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역이 필요하다. 초기 바이오벤처의 Seed Money 부터 Follow On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투자하는 창투사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수익률을 쫓을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 긴 호흡과 높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는 LP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주요 법령해석

* 편집자 주 :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근 산업은행이 GP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포함시키면서 이슈화되었으며 추후 국민연금 또한 채택 계획이 있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VC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 호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원과 금융위가 발표한 법령해설집의 주요 내용을 게재합니다.

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은?

* 자본시장법 §174·§178의2 :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

➡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함

②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또는 생성하였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은?

➡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또는 관련 시장정보 등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

• 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 (i) 일정기간 매매 등을 중단하거나, (ii) 해당 정보를 상

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가능

•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생성하였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

③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 시, 보유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 자본시장법 §147·자본시장법시행령 §153·§154·§155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여부),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변동 사유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일반보고’로 상세히 보고)다만, 그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약식보고’로 간소하게 보고,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등)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i) 아래의 ①~⑩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ii)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i) ①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 ②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③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 ④ 회사의 배당의 결정
- ⑤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⑦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영업부문 양수·양도 등
- ⑧ 자산 전부의 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
- ⑨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⑩ 회사의 해산

(ii)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여부는 주주 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설명 또는 표명하거나,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또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려움

- 다만,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前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④ 다음 각각의 경우,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 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②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 안내지침: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 자본시장법시행령 §141②: 주식 등의 공동보유자란 합의나 계약을 통해 ① 주식 등의 공동 취득·처분, ② 주식 공동·단독 취득 후 주식 상호 양·수도, ③ 의결권 공동 행사 중 한 가지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

➡ ①·②·③ 모두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음

• ①·③은 기관투자자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는 포럼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참석자간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STEWARDSHIP CODE

벤처캐피탈 법률 Q&A

소수주주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주주제안권의 내용

1. 주주의 요건

- 주주제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¹⁾을 소유한 주주에게 허용(상법 제363조의2 제1항)

2. 제안의 내용

-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
- (i) 총회의 의제(회의의 목적)를 제안하는 것과 (ii) 위 목적사항에 관한 의안의 요령(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

3. 제안내용의 제한

-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²⁾를 제외하고는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2항)

4. 제안권 행사의 절차

- 주주는 제안 내용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주주가 의안제안을 할 경우는 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2항)
-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결의 후 주주에게는 2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므로 6주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6주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짐. 다만 정기총회의 회일은 예측 가능하므로 특정 정기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주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366조의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함

5. 제안에 대한 회사의 조치

-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등 주주제안의 제한사유(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을 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의안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상법 제363조의2 제3항)

1) 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5 이상) 이상을 가진 주주로 완화된(상법 제542조의6 제2항), 그 수의 주식을 6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에 한함.

2)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6.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
- 회사가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에 기재도 하지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않은 경우 다른 의안을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고 주주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사는 과태료 제재(상법 제635조의 1 제21호)
-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갑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이

사회가 을 등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등이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별론으로 하고, 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 을 등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을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 부당거부에 대한 가처분; 재판실무에서는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에 의안상정가처분을 허용³⁾



3)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그 구제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 자 2007가합215 결정[의안상정등가처분]). 위 판례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함으로써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주제안 등이 거부됨으로써 법률상 보장된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있는 점, ②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주제안권 침해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비록 피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집통지와 공고를 마쳤다고 해도 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인 2007. 2. 28.(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은 2007. 3. 1.이 되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2007. 2. 28.이 된다)까지 이 사건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소집통고와 공고를 하면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점(시간이 촉박하여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의안의 상정을 위해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기왕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이 사건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 피신청인 회사의 비용, 절차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더욱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 자 2007가합215 결정[의안상정등가처분]).」라고 판시함.

A high-angle, close-up photograph of a business meeting. Several people are gathered around a table, looking at a tablet and papers. The tablet displays a dashboard with two pie charts and a bar chart. One person's hand is visible, holding a pen over a document. The scene is overlaid with a large, semi-transparent purple geometric shape on the right side, which contains the title text.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cool, with blues and greys from the background and a vibrant purple from the overlay.

시장 동향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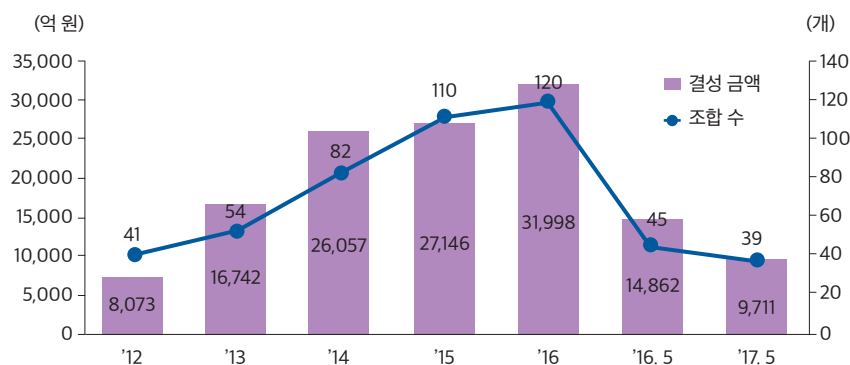
5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2017년 5월에 8개 조합(창투조합 5개, KVF 3개)이 1,747억 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5월에는 총 147건(103개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1,838억 원으로 전년 동월(1,433억 원) 대비 405억 원(28.3%) 증가
- 5월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황을 통한 회수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비중이 25.8%를 차지

투자 자원

조합 결성

- 금년 5월까지 39개 조합, 9,711억 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45개 조합, 14,862억 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수는 6개(13.3%) 감소, 결성 금액은 5,151억 원(34.7%) 감소한 수치이다.

연도별
신규 결성 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5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법인 20.4%, 정책기관이 11.1%, 벤처캐피탈이 10.1%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한국모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2.6%로 전년 동기(73.5%) 대비 10.9%p 감소한 수치이다.

[illegible]

5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비케이

비케이인베스트먼트는 한국모태펀드의 2016년 4차 정시출자사업 가운데 조선업 구조개선 분야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주요 투자분야는 조선관련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 수리업과 조선사 협력업체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이다.

케이티비

케이티비네트워크가 3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는 오디오 콘텐츠로 해당 분야에 8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케이티비네트워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 중 약 36.4%가 프로젝트 투자이다.

스마일 게이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했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구주 인수에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2개의 세컨더리 펀드와 3개의 M&A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 2017년 5월에 8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콘텐츠 펀드 3개, 세컨더리 펀드 1개,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 금액별로는 비케이인베스트먼트의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이 5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KTB네트워크의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스마일게이트그로쓰1호펀드'가 각각 340억 원, 315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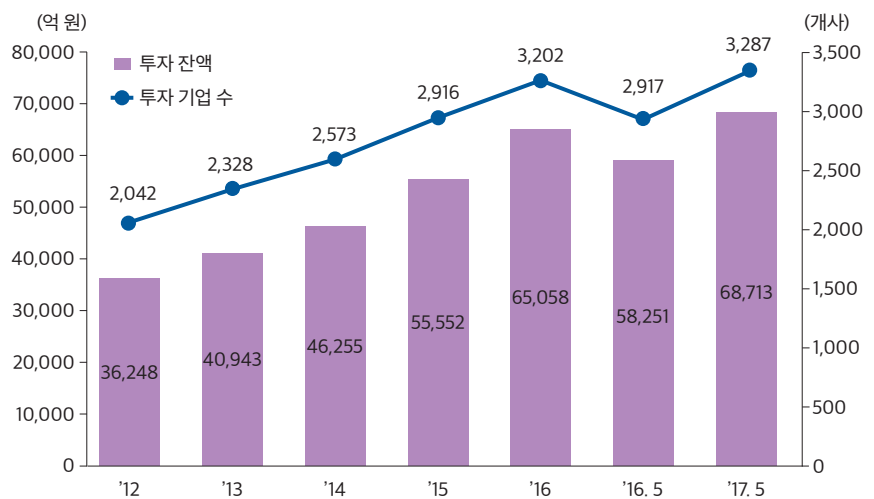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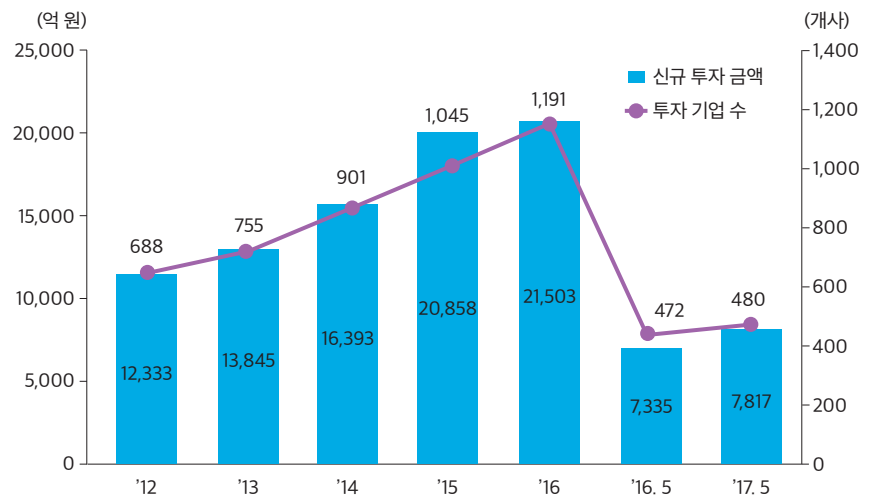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KTB네트워크	창투 조합	NAVER-KTB오디오콘텐츠전문 투자조합	340	문화	문화 기타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창투 조합	센트럴콘텐츠IP-VOD투자조합	27	문화	영상(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미래에셋벤처투자	창투 조합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7-1호	165	일반	중소· 벤처 일반
화이인베스트먼트	창투 조합	화이-워너 콘텐츠투자조합	100	문화	문화 기타
스프링캠프	창투 조합	스프링캠프 초기전문 투자조합 제1호	100	일반	중소· 벤처 일반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KVF	스마일게이트그로쓰1호펀드	315	일반	중소· 벤처 일반
케이큐브벤처스	KVF	케이큐브 NEO 펀드	200	일반	중소· 벤처 일반
비케이인베스트먼트	KVF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500	일반	일반 기타

5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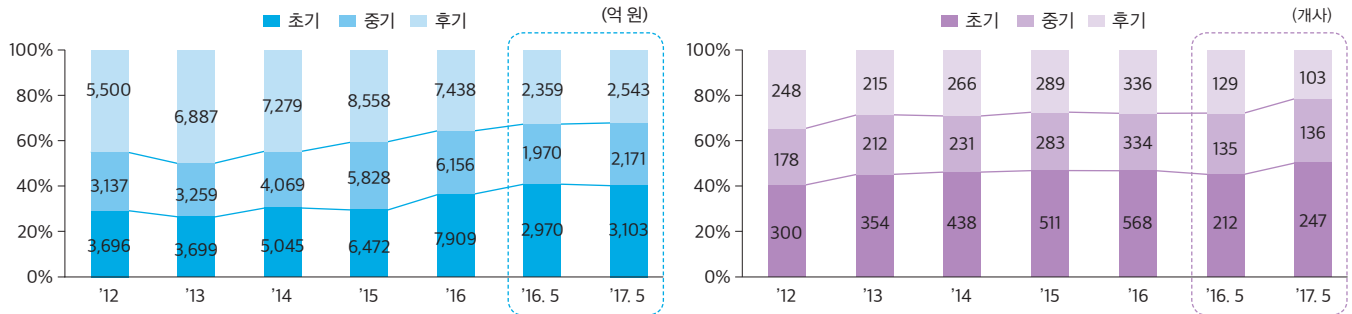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 금년 5월까지 신규 투자는 7,817억 원으로 전년 동기(7,335억 원)보다 6.6%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480개사로 전년 동기(472개사) 대비 1.7% 증가하였다.
- 5월에는 씨티케이코스메틱스가 3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MissfreshLimited, 코다코, 유씨코리아, 예스티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5월까지 3,287개 업체에 6조 8,71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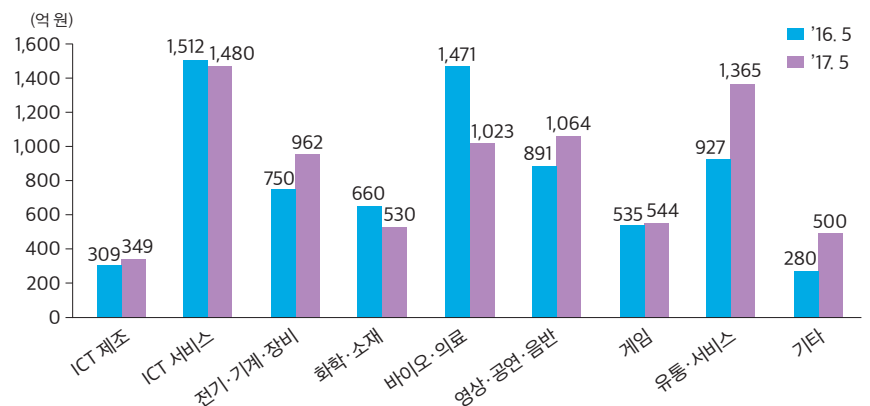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 투자

- 금년 5월까지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39.7%로 가장 컸으며, 후기기업 32.4%, 중기기업 27.9%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 투자

- 업종별로는 ICT서비스 1,480억 원, 유통·서비스 1,365억 원, 영상·공연·음반 1,064억 원, 바이오·의료 1,023억 원 순으로 신규 투자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 (4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448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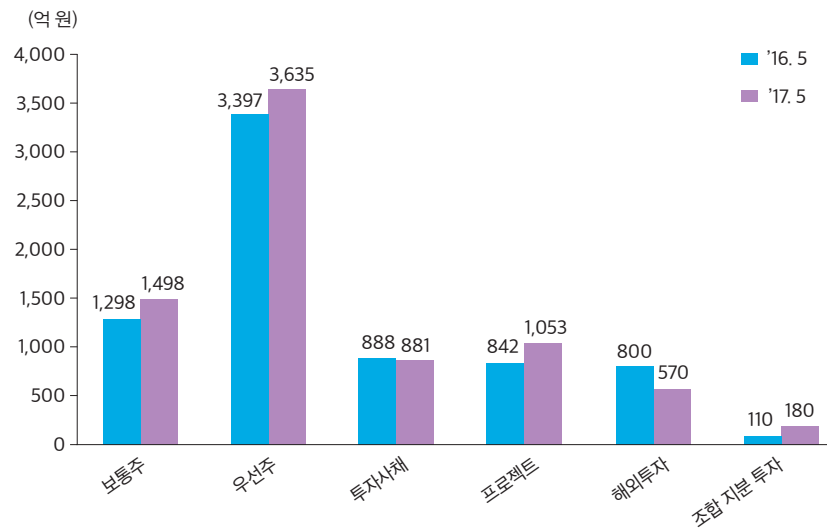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309	349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1,512	1,480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750	962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660	530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1,471	1,023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891	1,064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535	544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927	1,365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280	500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7,335	7,817

5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 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3,635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1,498억 원으로 19.2%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30억 원 감소하였다.
- 프로젝트 투자가 전년 동기(11.4%) 대비 2.0%p증가한 13.4%로 확대되었고, 보통주 투자는 19.2%로 전년 동기(17.7%) 대비 1.5%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7.2%로 전년 동기(10.9%) 대비 3.7%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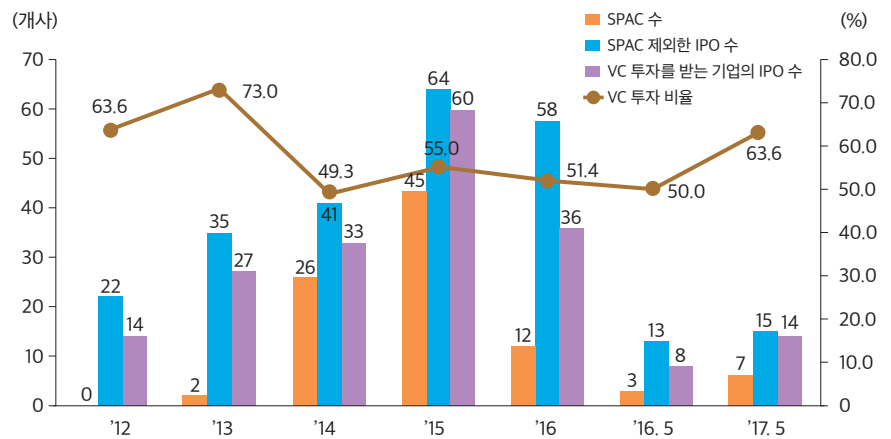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1,298	1,498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3,397	3,635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888	881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842	1,053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800	570
조합 지분 투자	0	0	0	152	271	110	180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7,335	7,817

- 지역별로는 서울(51.8%)을 비롯한 수도권(79.6%)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 7.3%, 지방 7.1%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25개사 570억 원(7.3%)이 투자되었다.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5월까지 회수원금은 2,571억 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20.6%, IPO 16.7%였다.
- 특히, 5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67건의 거래를 통해 157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102억 원(6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49억 원(31.2%)이었다.
- 5월에는 코스닥시장에 3개사(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0호,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0호,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 2개사가 VC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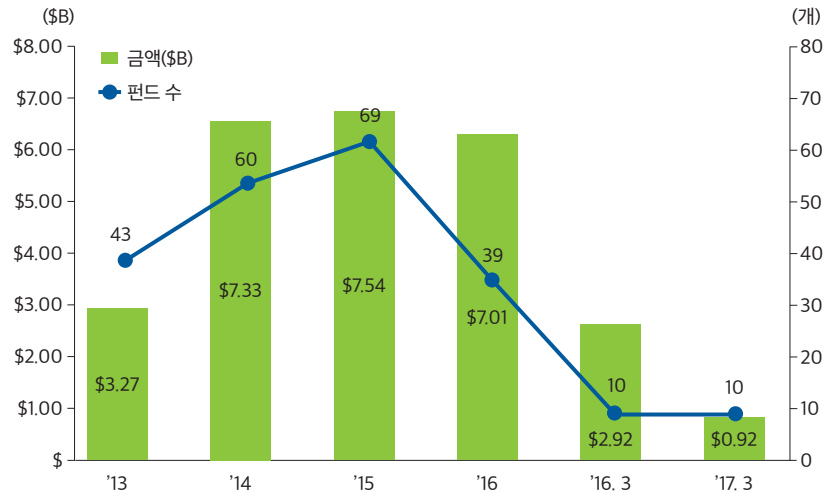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1,432	429
M&A	72	22	163	150	329	41	114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888	529
장외 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1,179	975
	채권	1,165	1,025	1,311	1,045	330	326
기타	188	736	217	342	476	92	198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3,962	2,571

(VC 포커스) 해외 1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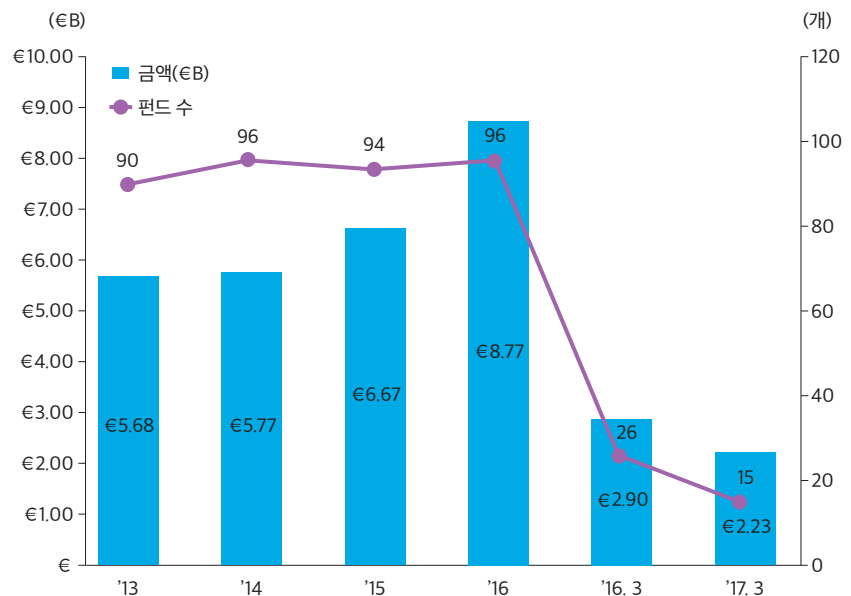
※ 자료: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투자 자원

- (중국) 2017년 1분기까지 10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90억 원)로 전년 동기(29억 2천만 달러) 대비 68.5% 감소함



- (유럽) 2017년 1분기까지 15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 금액은 22억 3천만 유로 (2조 6,632억 원)로 전년 동기(29억 유로) 대비 23.1% 감소함



- (비교) 2017년 1분기까지 펀드 결성 금액은 한국이 6,672억 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4.0배 수준, 중국은 1.5배 수준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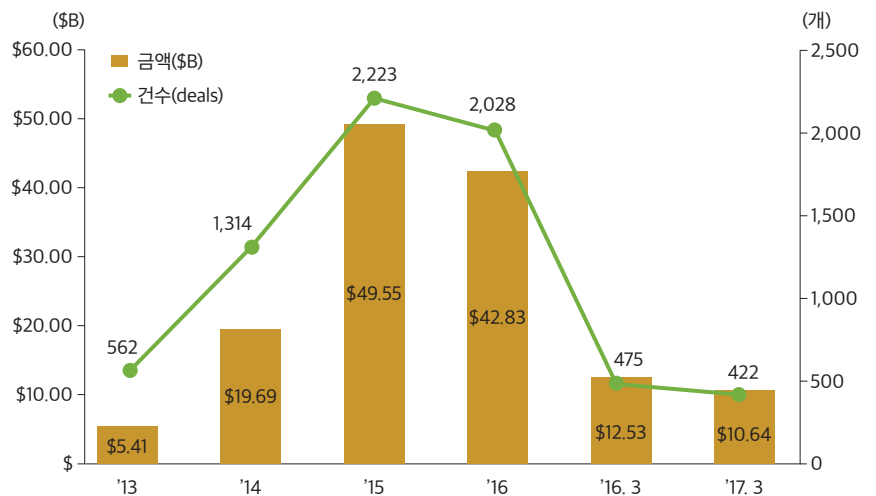
펀드결성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3	2017. 3
중국	36,575	81,986	84,335	78,407	32,660	10,290
유럽	67,835	68,910	79,658	104,738	34,634	26,632
한국	16,742	26,057	27,146	31,998	8,956	6,672

*환율은 2017년 3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18.50원, 1유로=1,194.28원)

- (중국) 2017년 1분기까지 총 422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106억 4천만 달러(11조 9,008억 원)를 기록함



- 2017년 1분기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Hangzhou Koukou Xiangchuan Network Technology, 가전제품기업인 Leshi Zhixin Electronic Technology 등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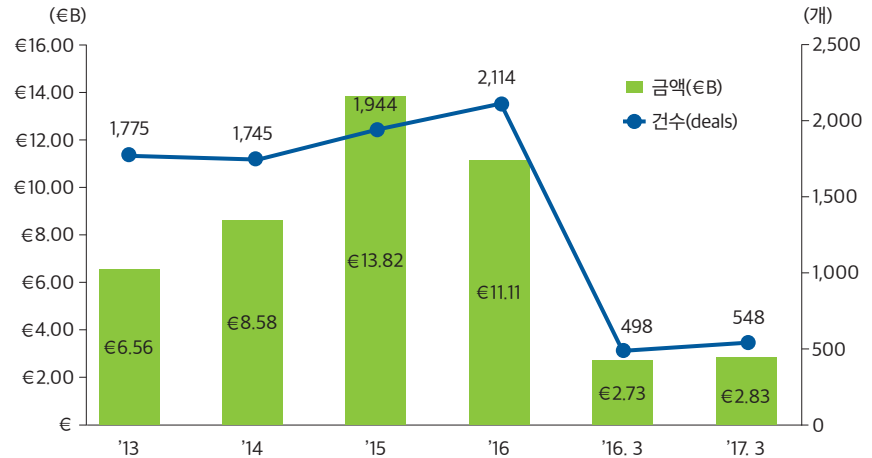
2017년 1/4분기 신규투자기업(중국)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2017년 1/4분기	
	기업명	금액
1	Hangzhou Koukou Xiangchuan Network Technology	1,100
2	Leshi Zhixin Electronic Technology [Tianjin]	701
3	Shenzhou Ucar [Tianjin]	670
4	Shanghai Sairuidi New Energy Automotive	600
5	Youxin Hulian [Beijing] information Technology	500

- (유럽) 2017년 1분기까지 총 548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투자금액은 28억 3천만 유로 (3조 3,798억 원)를 기록함

(VC 포커스) 해외 1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 2017년 1분기 유럽에서는 식품 배달업체인 Picnic B.V., 영국의 P2P 대출 플랫폼인 Funding Circle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2017년 1/4분기 신규투자기업(유럽)

(단위: 백만 유로)

순 위	2017년 1/4분기	
	기업명	금액
1	Picnic B.V.	100
2	Funding Circle	94
3	Cell Medica Ltd.	69
4	Vestiaire Collective SA	58
5	Breath Therapeutics	44

- (비교) 2017년 1분기까지 신규투자는 한국이 3,974억 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9.9배 수준, 유럽은 8.5배 수준을 기록함
- 2013년~2016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¹⁾은 99.3%로 유럽의 19.6%, 한국의 15.8%와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규투자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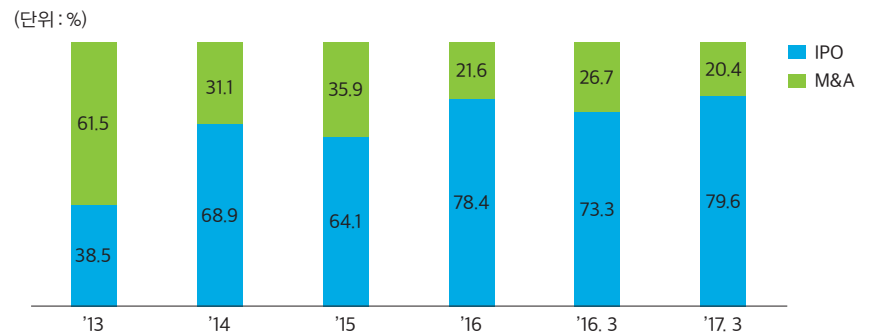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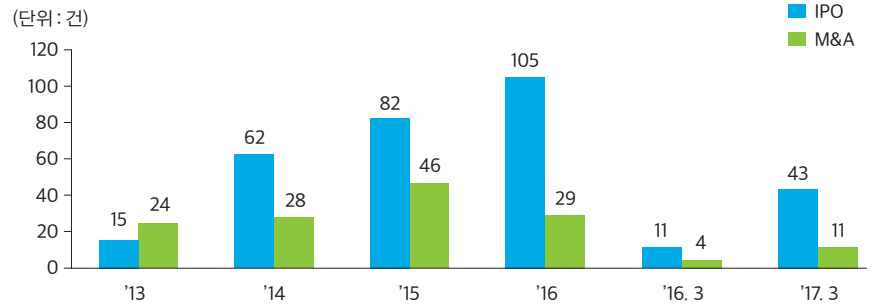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3	2017. 3
중국	60,511	220,233	554,217	479,054	140,148	119,008
유럽	78,345	102,469	165,049	132,685	32,604	33,798
한국	13,845	16,393	20,858	21,503	3,799	3,974

*환율은 2017년 3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18.50원, 1유로=1,194.2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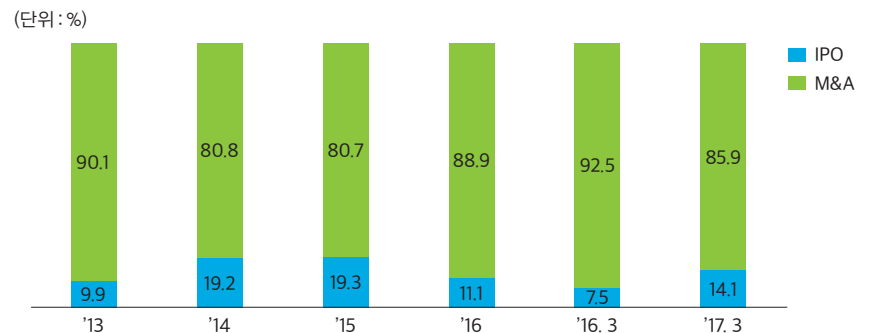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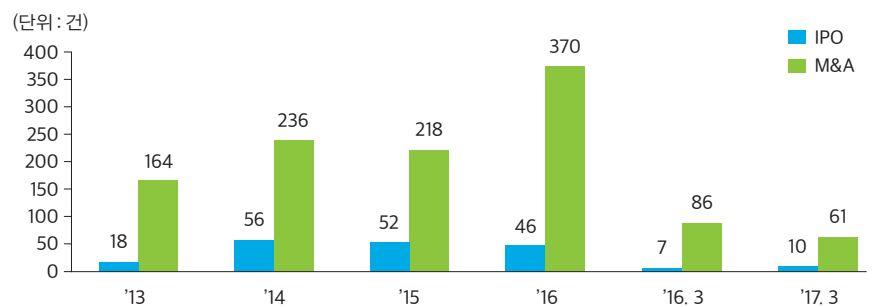
1) 연평균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회수

- (중국) 2017년 1분기까지 건수기준으로 43건 (79.6%)이 IPO, 11건 (20.4%)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2017년 1분기까지 건수기준으로 61건 (85.9%)이 M&A, 10건(14.1%)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비교) 2017년 1분기까지 중국의 회수유형은 대체로 IPO를 통한 회수를 하는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유럽은 주로 M&A를 통해 회수하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 6월 수시 출자사업 최종 선정 결과, 선정 조합 수 4개, 최소 결성 규모 1,238억 원, 모태 출자액 21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환경계정 출자 분야 미래 환경산업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중진 계정 출자 분야 KVF 결성 목적에는 지유 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문화계정 출자 분야 문화산업투자 KVF 결성 목적에는 슬레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선정되었다.

2017년 교육계정 출자사업 최종 선정 결과, 고려대기술지주, 부산연합기술지주, 서울대 기술지주, 연세대 기술지주, 전남대 기술지주가 운영하는 5개 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최소 결성 규모는 171억 원, 모태 출자액 12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2차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출자금의 규모는 총 478억 원이며, 문화계정에는 총 328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방송드라마와 NEW 콘텐츠 분야에 각각 228억 원, 100억 원을 출자하며, 펀드 결성 목표액은 380억 원, 200억 원이다. 관광계정은 관광산업 육성 분야에 150억 원을 출자하며, 펀드 결성 목표액은 270억 원이다.

한국산업은행

2017년 PE·VC 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결과, 지원한 50개 운용사

한국산업은행 벤처펀드 출자사업 숏리스트

구분	출자규모	접수현황
대형	700억 원 (350억×2개사)	LB인베스트먼트
중형	500억 원 (250억×2개사)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소형	150억 원 (1개사)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엠지인베스트먼트
중기특화	150억 원 (1개사)	IBK 투자증권
루키	100억 원 (1개사)	대덕벤처파트너스
		인터밸파트너스

자료 : 한국산업은행

중 20개가 통과했다. PE펀드 10개사, VC펀드 10개사 각각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며, VC펀드의 경우 대형 1개사, 중형 4개사, 소형 2개사, 중기특화 1개사, 루키 2개사가 통과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의 이번 출자사업 주요 분야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성장 기업 M&A △회수시장 활성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출자 규모는 △대형(3,000억 원 이상) 2곳에 각각 350억 원 △중형(800억 원 이상) 2곳에 250억 원 △소형(800억 원 미만) 2곳에 150억 원 △루키(300억 원 미만·설립 3년 미만) 1곳에 100억 원으로 잡았다.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현장실사와 2차 구술심사(PT)를 통해 7월 중순께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에서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금융 투자펀드' 추가 구성에 나선다. 2015년 이후 3번째로 구성된 이번 펀드의 출자규모는 550억 원이고, 위탁운용사들은 매칭투자를 통해 최소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6월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5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용 TCB 기술등급 상위 5등급(T5)을 받았거나,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약정총액의 80% 이상이 투자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평가에 따른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 지원된다. 성장금융은 펀드가 이러한 신산업분야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성장사다리펀드의 성과보수 일정액(10% 이내)을 운용사에 추가 지급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할 계획이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자펀드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의 운용사로 LB인베스트먼트와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를,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의 운용사로는 송현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LB인베스트먼트와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는 각각 255억 원과 245억 원을 출자받아 3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성장기업펀드의 운용을 맡은 송현인베스트먼트는 750억 원을 지원받아 900억 원 규모의 조합 결성에 도전한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25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